

哲學 概念의 變遷

哲學의 普遍的 定義의 難點 (1)

金午星

모든 學問의 名稱 가운데 哲學이란 것처럼 曖昧, 不確實한 것은 없다. 哲學이란 무엇이나?고 무를 때에 『物理學이란 物體의 現象을 研究하는 學問이다.』란 것처럼 確實한 또는 一義的인 對答을 줄 사람은 업슬 것이다. 哲學이 文化史 上에 그 遺産을 남겨온지 이미 數千餘年, 그 동안 數만흔 專門家들이 애써 討究해오건만 아직도 그 名稱 미테서 어떤 一義的인 規定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일은바 哲學의 運命인 것이다.

大概 學問이란 것은 人間이 知的 活動의 對象에 對한 記號라고 할 수 있다. 物理學은 物理的 現象의 記號이며, 數學은 數的 現象의 記號이며, 經濟學은 經濟的 現象에 對한 記號인 것이다. 이러한 所謂 特殊科學에 屬하는 學問들은 各自가 特定의 對象을 가지고 잇스며, 또한 特殊의 對象을 갖지 안코는 成立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哲學은 事情이 그와 전혀 달다. 勿論 哲學도 學問인 以上 어떤 對象을 갖고 잇슬 것이며, 또 對象 업시 哲學이 學問으로서 成立될 수도 업슬 것이다. 그러나 哲學의 對象이 무엇이나?고 무를 때 우리는 物理學이 物體를, 數學이 數的 事實을, 經濟學이 經濟的 現象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고 잇는 것과 가티 누구나 受肯하는 確實無疑한 것을 對象으로서 집어낼 수는 업는 것이다. 哲學은 對象을 가져야 하며 또 實際에 잇서는 各個의 哲學이 各自의 對象을 갖고 잇슴에도 不拘하고 그 對象을—달은 學問의 그것처럼— 一義的으로 規定할 수 업는 대서 哲學의 曖昧性和 哲學研究의 困難性이 와지는 것이다.

哲學의 曖昧性은 그 名稱의 始源에서부터 由來한 것이다. 哲學의 故鄉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잇는 바와 가티 希臘의 殖民地이다. 希臘人들은 哲學을 變智의 精神이라고 생각했다. 哲學의 原語 Philosophie는 Philo(愛)와 Sophie(智)의 合成語로서 그들은 智慧를 사랑하는 精神을 철학이라 했으며, 愛智의 精神을 所有한 사람을 哲學者라고 부른 것이다. Philosophie란 말을 처음 지어내인 사람은 헤로도도스[헤로도투스]이며, 『이것을 日本에 西洋哲

學을 처음으로 輸入한 西周氏가 『哲學』이라고 翻譯한 것이다.』 그 뒤에 피다 고라스 등이 人民에게 愛智의 精神을 가르치는 自己들의 職業을 Philos.phos 즉 哲學者라고 스스로 부르게 됨으로서 그것이 한 개의 學問의 名稱으로서 確立된 것이다. 그러나 哲學이 愛智의 精神으로서 自己의 概念을 確立하기는 소피아-스트[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論爭에서이라 할 것이다. 이오니아 등의 希臘의 殖民地의 現實을 地盤으로 한 自然哲學의 뒤를 이어 希臘 本土인 아테네[아테네]의 民主政治를 地盤으로 한 人間論哲學이 擡頭하게 되었스니 이들 哲學者를 소피아-스트라 부른다. 소피아-스트는 自然哲學이 宇宙의 原理를 捉잡으려고 한데 反對하여 오직 人間的 現實을 認識하려 하였으며, 그리하여 人間的 眞理, 그 가운데서도 아테네市民에게 市民的인 眞理를 認識시키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소피아스트, 즉 智者로서 自處한 것이다. 自己의 智慧를 一般 市民에게 가르치는 것은 自己에 哲學者의 任務라고 생각한 것이다.